

미래의 國民像

文公委員들에게 부탁한다

趙相元

출판인 · 현암사 회장

몇해 전 여러 신문들에서 곧잘 '克日'이란 말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88서울올림픽에서 보기 좋게 일본을 우리의 뒷전으로 밀어냈다. 누구나 통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보다 금메달을 몇 개 더 땀다고 해서 克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야를 바꿔 보면 그렇지 않다. 경제를 비롯하여 너무도 많은 부문에서 우린 그들의 뒷전에서 서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특히 지성을 가꾸어 나가는 독서환경이 일본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知育·德育·體育의 삼위일체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수년 동안 편중되어 살아온 것 같다. 즉 지나칠 만큼 체육과잉이 아니었던가. (물론 올림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의 힘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할 때가 왔다. 필자가 출판인이라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서적 소비량이 선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나 저조하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모든 발전은 독서하는 국민의 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온 필자는 오래 전부터 수준 높은 독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出協의 許昌成 부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鄭大哲 문공위원장의 부탁이라면서 지난 달 필자가 초안해둔 讀書運動支援法案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청원서를 낼 목적으로 필자 나름대로 만든 것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잠재워 두었던 것이다. 이 법안이 완벽하지 못한 탓도 있었겠지만 전날에 몇몇 의원들에게 보내보거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 보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 버렸던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는 그가 속해 있는 곳이 정당이건 정부이건간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번창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권의 유지 또는 쟁취를 위하여 票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인기를 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독서운동 같은 정책이나 立法은 그런 정치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지만, 진실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國民像을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다. 지난 올림픽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저 10위 안에만 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중 4위에 올라섰다. 우리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고 國威를 한층 드높인 것이다. 이런 좋은 결과를 놓고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결과의 기본적 토대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동기로 이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 온 국민을 경기장으로 몰아 넣고 또 올림픽의 대 승전보까지 울려 퍼지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텔레비전의 채널을 틀면 어느 방송이나 스포츠 일변도였던 것이다.

지나간 오일 쇼크 때 KBS방송이 한여름 동안 계속적인 독서운동을 해서 비록 다른 부문의 景氣가 지극히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적가는 호경기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반면에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동안 서적가는 극히 한산하다. 참으로 방송의 힘은 대단하다.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들의 장바구니 속에 책이 들어 있고, 젊은이들이 책을 들고 다녀야만 체통이 선다는 사회기풍을 가상해 보자. 그와 같은 새로운 國民像이 정립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문제는 없을 것이다. 필자의 망상일까?

국회 문공위원들 가운데 몇 분이라도 미래의 우리 國民像을 어떻게 가꾸 나갈지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초점	2	北韓原典 출판, 무엇이 문제인가
	3	북한원전 출판에 대한 매스컴의 논조
	4	해외저작권 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6	출판자유와 한계는 '이성과 양식'
화제	7	어린이와 함께 자란 '계몽사' 40년
서평	8	尹以欽 「韓國宗教研究 II」-鄭鎮弘 趙珪 「朝鮮後期 天主教史研究」-李元淳
	9	金旭東 「대화적 상상력」-金聖坤 스타이안 「표현주의 연극과 서사극」-김방옥
	10	에드워드 하임즈 「토양과 문명」-정용재 H. 주커먼 「科學엘리트」-李成奎
	11	金文洙 「서러운 꽃」-辛德龍
작품구상	11	장편 「새매」/崔仁碩
저자 인터뷰	12	역사드라마 소설화한 극작가 辛奉承씨
화제의 책	13	월북화가 金瑠俊의 수필세계/朴演求
출판화제	14	서양인이 보는 동양철학의 신비
	15	티베트 불교미술의 극치 한눈에
	15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통합단체 '출판美協'
	16	서점가에 '여성'이 쓴 책' 늘어났다
연구소 출판	17	'여성학' 연구의 요람 梨大 한국여성연구소
독자서평	18	「現代의 歷史理論」-허재영/「밤과 안개」-金瑛子
지금 독서중	20	黃仁寬의 「중립화통일론」-정치평론가 洪思德씨 앙드레지드 「좁은 문」-드라마연출가 黃仁雷씨
	21	오탁번 「겨울의 꿈은 날줄 모른다」-회사원 金卿蘭씨 朴贊式편역 「鄧小平」-세무사 徐廷一씨
교양논단	22	「과학사란 무엇인가」/金永植
리포트	23	일본도서관대회 참관기/嚴大燮
컬러화보	24	국사학자 韓永愚교수의 書架
추천도서	26	'88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선정목록
세계의 출판	20	중국독서계에 화제 물고온 前홍위병 회고록·外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화제의 책
실용도서	42	사진취미와 카메라 기술
	43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목록
	48	데스크칼럼-鄭丙圭/독서퀴즈